즉시 배포용: 2016년 5월 16일 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티켓 재판매 입법에 관한 ANDREW M. CUOMO 주지사의 성명

"법무 장관 사무실에서 집계한 결과를 포함한 최근 보고서에는 뉴욕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콘서트 및 기타 이벤트 티켓을 액면가 이상으로 지불하도록 방치한 일련의 불공정 불법 티켓 판매 및 재판매 사례가 수록되었습니다. 여기에는 1차 판매에서 티켓 재고의 상당 부분을 원천 징수한 사실과 티켓 투기꾼들이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다량의 고급 티켓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전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포함됩니다.

이 문제가 하원 및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(S7181/A9773)에서 해결되지 않아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. 하지만,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심각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이러한 이유로,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.

티켓 제공 여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및 이익을 좇는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이용한 불공정 기술의 침입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.

본인은 2017년 6월 30일에 다음 법이 만료되기 전에 취해야 할 권고안을 연구하고 만들기 위해 옹호단체, 규제 당국 및 업계 대표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작업 그룹을 결성할 예정입니다.

이러한 개혁이 없다면 내년에는 그 어떤 유사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